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저자 김주하 앵커
“나, 김주하는 경마장 말이다”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무작정 김동건 아나운서를 찾아가 “한 번만 들어 달라”고 간청했던 당찬 사람, 김주하(35) 앵커. 다큐 에세이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에서 그녀는 “절대로 마흔 이전에는 책을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이는 것’의 양보다 ‘알고 싶은 것’의 양이 많아졌을 때 집필을 떠올리게 됐다”며 저지르는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는 방송 현장의 숨 막히는 긴장감과 취재 현장에서 일어났던 생생한 경험담을 22개의 에피소드로 그려낸 책이다.

1997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그녀는 이례적으로 사내기자 시험에 합격해 2006년 5월까지 사회부·경제부 기자로, 지금은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가 그리던 꿈은 앵커, 기자, 아나운서가 아니었다. 그저 뉴스가 좋았을 뿐이고, 뉴스 속에 파묻혀 살고 싶었다. 때문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후 1년 넘게 하루가 멀다 하고 출장을 다녔던 시절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출장 다니느라 읽지 못했던 밀린 신문을 빠짐없이 챙겨 읽는 바지런을 떨었다. 아나운서로 입사해 기자 체질까지 소화한 그녀에게 아나운서로는 최초로 아침 프로그램 <피자의 아침> 단독 진행을 맡을 수 있었고, <뉴스데스크>의 여성 앵커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앵커는 뉴스 속에 파묻혔다 나온 기자를 다시 취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사 내용이 궁금하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물어봤어요. 방송시간 제약으로 죽어버리는 정보까지 알고 싶었죠.” 그녀가 방송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운서에서 기자로 직종을 바꾼 이유는 뉴스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녀는 빈틈없는 삶을 살아왔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계가 그려져요. 어릴 적 동그라미 시간 계획표 처럼요. 비는 시간이 있으면 불안해 일정을 꼭꼭 채우는 성격이에요. 대학 다닐 때 과외를 세 개하면서 장학금을 탔어요. 한 번은 장학금을 타지 못해서 과외 하나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야지 생각했는데, 성적은 더 떨어졌어요. 시간이 많다고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화여대 과학교육학과에 다닐 때 그녀는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수업을 받았다. 교수님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스스로 시험 문제를 내고 답을 썼다. 답이 나오지 않으면当场 교수님께 달려가 물어볼 정도로 모범생이었다.



네티즌들이 너무 억울하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만두고 싶다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녀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있기에 ‘김주하 앵커’의 가치는 지속될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다. 시청자가 원할 때까지 앵커로서 종료 시점인 것을.

“김주하는 경마장 말이다.”

한 곳만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처럼 취재할 때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무섭게 집중하는 그녀에게 남편이 지어준 별명이다. ☞